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마르다의 신앙고백

(요 11:27)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을 때 그녀는 “주여 그러하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기독교 교리상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1. 믿음의 기반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는 신앙고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지극히 짧은 것이지만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는 견고한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엄청난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한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이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 자체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라는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진리를 모신 사람이요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2. 세 가지 고백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1) 주는 그리스도이심

주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시대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직분에 한정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영광스러운 왕, 힘을 가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아야지 왜 자꾸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보느냐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 연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지 결코 영광을 받으시려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애에 들어가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기적이나 마술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기적과 상관성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고백을 받을 때 전혀 기적과 상관성이 없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나 마가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고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주,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 양식이 아니라 계시활동이라는 견지에서 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런 뜻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있고 아들의 뜻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3) 주는 세상에 오시는 분

세상에 오시는 분은 구약성경에 약속된 분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말씀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메시아를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의 메시아, 시편 16:10, 22:1-8에서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분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야 모든 문제의 매듭이 풀리게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르다와 같이 주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신앙고백을 가진 신실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미래 30년을 위해!

2023년을 준비하는 목회정책협의회가 10월 29일(토) 오후 2시 802호에서 열렸다.

당회는 지나온 30년의 토대 위에 앞으로의 30년을 바라보며 교회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도와 논의, 협의를 하였고, 구체적 시행 절차는 추후 당회에서 순차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2023년에 변화되는 사항들이다.

2023 바뀌는 것들

1. 3부 예배 형식 변경

기존의 전통 형식 예배는 주일 1·2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3부 예배는 일부 현대적 형식을 가미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부 예배 섬김위원은 가능한 20-40대 위주로 봉사하도록 하고, 임마누엘찬양대는 유지하되, 솔리스트 지원과 파이프오르간 사용은 하지 않으며, 봉헌 연주를 담당하던 아멘 관현악단도 운영하지 않는다.

2.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실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시행하지 못하였던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내년 5월 5일(금)에 실시하기로 하고, 만약 장소 선정이나 코로나 등 다른 사정으로 체육대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구찬양대회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3. 향존직 선거-16대 장로 선거 실시

시무장로 총원을 위하여 내년 16대 장로선거를 실시하되, 안수집사, 권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던 전례에 따라 2024년에 시행한다.

4. 수요 1·2부 예배,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장소 변경

예배 인원이 증가될 때까지 예배 장소를 본당에서 101호(웨스트민스터홀)로 변경하고, 공간 규모에 맞추어 파이프오르간이나 전자오르간 반주 없이 피아노로만 예배 찬양을 인도한다.

5. 순례자 제호 및 판형, 후보 리뉴얼

교회 공식 신문으로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순례자 제호와 판형, 그리고 후보를 시대적 감각에 맞도록 리뉴얼하기로 하되, 모든 작업은 연말을 목표로 진행 중인 Visual Identity 작업과 연계하여 2023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6. '비전나눔 음악회' 연 2회 실시

지난 10월 개최한 대치동 어린이를 위한 비전나눔 음악회가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와 성도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함께 매년 계속되기를 원하는 요청이 있어 내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1회, 성도와 이웃 초청찬치 음악회 1회로 두 번 실시하기로 한다.

7. '서울교회 전도대'(가칭) 재건

전도대 조직을 재건하여 서울교회 전도전략 수립과 시행을 담당케 한다.

8. 교회 교육 혁신 특별위원회, 교회 성장 전략 특별위원회 구성

교회 교육 전반을 평가하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전략을 연구 시행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TF와, 서울교회 성장전략 전반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TF를 구성하여 교회 성장에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9. 구제위원회 사역에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시행

개인적인 차원의 구제활동에서 사회봉사활동으로 사역의 지평을 넓혀 재난구호봉사단(가칭)을 신설하는 등, 상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활동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10. 청지기 수련회 방식 변경

청지기 수련회를 신년 초 2-3일간의 저녁 시간 전교인 영성강화 집회로 시행하며, 각 위원회 별 교육의 시간도 함께 진행하여 전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였다.

11. 헌신예배 부서 확대

기존의 연 4회 헌신예배를 7회로 확대하여 1월-스데반회, 2월-권사회, 3월-교구위원회, 4월-찬양위원회, 5월-교육위원회, 8월-전도위원회, 10월-새가족위원회로 시행하기로 한다.

12. 소요리문답부를 교리문답부로 명칭 변경

총회에서 소요리문답 명칭을 교리문답으로 변경함에 따라 우리 교회도 이를 따른다.

13. 서리집사, 안수집사 명칭 변경

총회에서 집사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서리집사는 집사로, 집사는 안수집사로 호칭한다.

14. 매월 1회 명사초청 시간 시행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사회 여러 지역의 기독교인 인사를 초청하여 신앙의 성숙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넓히고 도전받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2023 수험생 자녀를 위한 수능기도회

11월 17일(목), 웨스트민스터홀
오전 8시 30분 - 17시 45분

2023년도 수험생을 위한 수능기도회가 11월 17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시험 시간표에 맞춰서 진행된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사명자대회

믿음의 계대를 잇는 다음 세대 양성을 위해



이승준 집사
(사명자대회
교육분과)

교회가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서야 조금 안정 단계로 넘어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때맞춰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우리의 아이들도 예전보다 더욱 신나고 재미있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로 잘 성장하고 있

습니다.

이번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면서 담당부서인 유년부 아이들에게 사명자대회가 무슨 대회인지? 그 배경인 교회 설립 과정과 의의를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교회로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의 설립을 위해 간절한 눈물로 기도 하시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달라는 신앙 선배들의 작정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울교회가 되었고, 이 예배당에서 함

께 모여,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특별새벽기도회 상품에는 진심 기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의 시작을 실제 목격한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신앙이 어떠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 잘 알려줘야 함과 동시에 우리 다음세대가 이를 더욱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는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임 즉,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사명자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 부서들은 서울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그 뜨거운 신앙의 본을 따라,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

앙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사명자”로서의 믿음의 계대를 잇는 우리 다음세대 양성을 지향하며, 1) 매일 요일별 기도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사모하여 동참하여 간절히 기도에 힘쓰며 2) 매일 성경통독표에 따라 말씀을 읽고 3) 1인 1사랑의 실천과 전도에 힘을 쏟는 훈련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분들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낱 추억으로 남지 않고, 더욱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펼쳐 나가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세워 나가는 역할을 우리의 다음세대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찬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로 서울교회를 허락해 달라던 그 첫 그 모임 그때의 그 마음으로 말입니다.



성경암송대회

말씀으로 살아요



송미령 권사
(초등부 부장)

교회를 위해 헌신과 기도를 다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 전철에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대부분 승객이 줄거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한 청년이 문 근처에 서서 두꺼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빠져들어 읽다가 하차했는데 내린 자리에서 한참 더 읽더니 아쉬운 듯 성경을 덮어 손에 들고 갔습니다. 청년의 뒷모습이 성경 암송하는 초등부 친구들과 겹치면서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요즘 초등부는 잠언 말씀을 외우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28명 출석자 중 16명이 말씀 암송에 도전했습니다. 선생님 3분도 힘을 더하셨지요. 서로서로 도와줬는지 챙겨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초등부만 아니라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교회학교 곳곳에 잠언을 읊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11월 13일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잠 1:7) ‘내 아들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잠 3:1) 거짓과 진리가 뒤섞여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잠언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할 때, 눈 앞이 캄캄할 때... 힘들게 외웠던 성경 말씀이 머리를 스쳐가며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멘!!’ 하고 평안을 되찾았던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성경을 암송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복된 순간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함께 성경을 외우세요.^^

성경암송대회는 교회학교 학생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의 잔치마당입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콤비를 이루고, 다락방 식구들이 손에 손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 일시 : 11. 12(토) 일반부 본선
11. 13(췌)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1장-8장
(4년간 잠언 전장 암송)



사명자대회

방글라데시를 위한 기도 주일

유년부는 오늘, '방글라데시를 위한 기도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명자대회를 맞이하여 서울교회 유년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울교회에서 파송한 방글라데시 조남혜 선교사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도 보내시고 숙식을 제공하며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2011년 기증한 4대의 PC가 고장나고 노후화되어서 4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1대를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인 방글라데시, 그곳에서도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소망호스텔에 우리의 작은 사랑을 모아 전달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기도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유년부 교사일동

2023년도 교회봉사 지원서 전교인 1인 1부서 봉사

오늘 2023년도 교회 각 부서를 섬길 봉사 지원서가 후보 삼자로 배부된다.

현재 교회 회복에 이어 코로나 비대면 상황도 점점 종식될 것을 기대하며 많은 부서에 새 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간 봉사(교회 분쟁 기간은 제외)를 하였던 성도들은 가능한 다른 부서로 옮겨 교회 여러 부서의 봉사 경험도 쌓고, 동시에 봉사자가 부족한 다른 부서도 더 힘을

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

성도들 모두가 1인 1부서 봉사 원칙에 꼭 동참하며 특히 안수집사·권사 등 중직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빠짐없이 교회 봉사 신청을 하기 당부 드린다.

할 일 많은 서울교회에 믿음의 동역자로서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11월 12일(토) 오후 3시, 서울교회

강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 모임이 11월 12일(토)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손달익 담임목사가 담당한다.

방송실 봉사자 모집 주일 1·II·III부 예배 시

교회 본당 모니터와 방송장비들이 교체되면서 주일예배 시 방송실 봉사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많은 성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2022 성경암송대회

11월 12일(토) 일반부 / 13일(주) 교회학교

2022 성경암송대회가 1주 앞으로 다가왔다. 범위는 잠안 1장-8장이며 암송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을 진행한다.

이미 각 부서별로 암송을 진행 중이며 모든 행사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웃에게 1인 1사랑 실천

사명자대회 사랑의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에게 1인 1사랑 실천을 나누기 위해 전임 교역자들이 '꿈밭에 사람들'을 11월 3일(목)에 방문했다.

'꿈밭에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 여성 쉼터로 약 10여 명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여성들이 일시 기간 동안(1-3년) 머물며 사회 복귀를 위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이다. 이 단체를 지원하기 원하는 부서나 다락방은 박미라 전도사에게 문의바란다.



'꿈밭에 사람들'을 방문한 전임교역자들과 보호 여성들

식기 반납 협조문

8층 식당 이용 시 식기 반납은 반드시 하나씩 반납해 주세요. 겹쳐서 반납 시 뒷면 세척에 따른 물의 과소비와 봉사자들이 힘들어집니다.

식당관리부

동정

- 식사 제공 : 3교구 김지수 집사 김순진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차가운 바람이 부는 환절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3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30년을 잘 준비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고통과 절망이 있는 모든 곳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세계 여러 곳의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이 땅은 복음화된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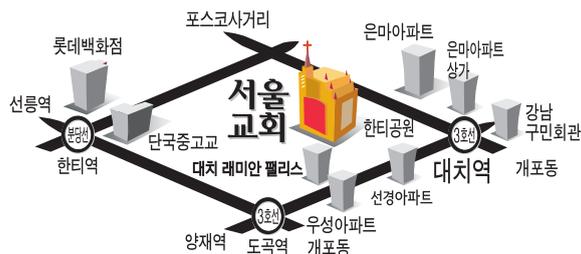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11월7일	월	요 19-21		암 1-9, 욥, 은 1-4	
11월8일	화	행 1-2		미 1-7, 나 1-3, 합 1-3	
11월9일	수	행 3-5		슥 1-3, 학 1-2, 슥 1-5	
11월10일	목	행 6-7		슥 6-14, 말 1-4	
11월11일	금	행 8-9		마 1-6	
11월12일	토	행 10-12		마 7-11	
11월13일	주일	행 13-14		마 12-15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II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본당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